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### 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7월 미 소매 판매 호조 및 소비자 심리 약화...신중론 시사
- Reuters: 7월 미 수입 물가,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반등
- YahooFinance: 예상치 넘는 도매 가격...연준 9월 금리 인하 결정 어려워질까

### [무역 전쟁]

- Bloomberg: 트럼프와 푸틴, 앵커리지 회담에서 서로 다른 목표 설정
- Bloomberg: 트럼프, "반도체 관세 300%로 인상 가능"
- CNBC: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, 비축 재고량 때문에 가려져

### [주택]

- CNBC: AI, 아파트 시장 진출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BC: 여름 성수기, 항공사들도 예측 불가능하다
- CNBC: 미 소비자, 관세 불구하고 주얼리 구매 열풍

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### [미국 경제]

#### Bloomberg: Consumer Sentiment Signals Caution After Solid US Retail Sal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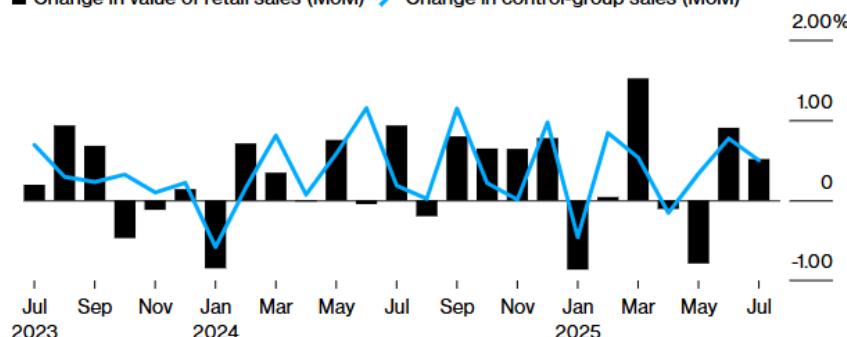
#### 7월 미 소매 판매 호조 및 소비자 심리 약화...신중론 시사

- 7월 미국 소매 판매가 6월에 상향 조정된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, 이코노미스트들은 노동 시장 침체 및 소비자 심리 약화 등의 이유로 향후 추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.
- 인플레를 반영하지 않은 소매 구매액은 6월 0.9% 증가에서 상향 조정된 이후 0.5% 증가했다.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.3% 증가했다.
- 금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, 8월 초 미국 소비자 심리가 하락했다.
-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그간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지만, 하반기에 지출이 호전될 것임을 나타냈다. 무역 정책이 명확해지고 주식 시장이 반등하며 구매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.

### US Retail Sales Increase in Sign of Consumer Resilience

July advance followed upwardly revised increase in prior month

■ Change in value of retail sales (MoM)    ↗ Change in control-group sales (MoM)



Source: Census Bureau

Note: Control group sales exclude food services, autos, building materials and gasoline

Bloomberg 기사

### Reuters: US import prices rebound in July on higher consumer goods costs

#### 7월 미 수입 물가,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반등

- 7월 소비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미국 수입 가격이 반등했다. 이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심화될 조짐을 나타낸다.
- 노동통계국은 수입물가가 6월 0.1% 하락한 이후 7월에 0.4% 상승했다고 발표 했다. 이는 수출국이 관세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.
- 목요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 데이터에서는, 식품 및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상품 가격이 급등했다. 이는 앞으로 몇 달간 인플레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을 뒷받침한다.

Reuters 기사

### YahooFinance: Why hotter-than-expected wholesale prices make the Fed's September rate cut decision harder

#### 예상치 넘는 도매 가격...연준 9월 금리 인하 결정 어려워질까

- 도매 물가 보고서에 따르면, 기업의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가될지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.
- Morgan Stanley 산하의 E-Trade의 투자 담당 전무이사 Chris Larkin은 “인플레가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이나, 이 같은 상황이 9월 금리 인하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”고 전했다.
- 7월 물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0.9%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현재 생산자 물가 지수(PPI)는 3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.
- 생산자 물가지수(PPI)와 소비자 물가지수(CPI)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 지표인 ‘개인소비지출지수(PCE)’가 어떻게 될지 대략적인 추산이 가능한데, 이 보고서는 8월 2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.
- 뱅크오브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Stephen Juneau는 “연준의 인플레 측정 기준인 2%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”며 9월 금리 인하를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.

YahooFinance 기사

## [무역 전쟁]

### Bloomberg: Trump and Putin Have Different Goals for Anchorage Summit 트럼프와 푸틴, 앵커리지 회담에서 서로 다른 목표 설정

- 트럼프와 푸틴이 앵커리지 회담을 매우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.
- 트럼프는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이번 회담의 핵심 목표로 보고 있으나, 푸틴은 전쟁에 대한 양보없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수 있다 는 것 자체를 이미 승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.
- 전쟁 발발 이후 G7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고립하려 했으나,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이 같은 상황이 해소되고 있다. 또한, 이 회담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“우크라이나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겠다”는 원칙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다.
-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,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두 번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.
- 반면,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의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을 키우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

Bloomberg 기사

### Bloomberg: Trump Says Semiconductor Tariffs Coming Soon, Could Reach 300%

#### 트럼프, “반도체 관세 300%로 인상 가능”

-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안에 반도체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, 이는 관세 제도가 대폭 확대될 징후에 해당한다.
- 그는 “세율을 200%, 300%로 정할 것”이라고 말하며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.
-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의 제품에는 관세가 면제되지만, 백악관은 이 면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후속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다.

Bloomberg 기사

### CNBC: Tariff-driven price hikes may be hidden by products stuck in ‘the middle mile’

####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, 비축 재고량 때문에 가려져

- 생산자 물가지수(PPI)와 소비자 물가지수(CPI)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, 소비자들은 전반적인 상품 가격선이 유지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.
-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수입 업체들이 화물 운송을 앞당기며 재고 확보에 나서며 가격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이다.
- 기업들은 연말에 진열되는 성수기 상품들이 올해 두세달가량 앞당겨져 보관되고 있다고 밝혔다. 이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수기 물량은 작년보다 적다.

- 이에 따라 관세 인상에는 대비할 수 있었으나, 창고 공간이 부족해지며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약간 상승한 상태이다.

CNBC 기사

### [주택]

**CNBC: AI is moving into the apartment market, taking over work orders, lease renewals, showings and more**  
**AI, 아파트 시장 진출**

- 집주인이 렌트 확인 및 수리 요청으로 집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. 계약 갱신, 집 투어 등을 인공지능이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.
- AI 기반 가상 에이전트를 통해 소비자의 집 투어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. 소비자의 질문에 답하고 임대 계약서를 검토하며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.
- 또한, 다세대 주택 개발업체는 조경, 배관, 난방 등 여러 업체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업체들은 송장을 사용하는데, AI 에이전트가 모든 송장을 수집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.
-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높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며,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.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운영업체와 투자자들은 실험 단계에 있다.

CNBC 기사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**CNBC: Summer travel isn't as easy as it used to be for airlines**  
**여름 성수기, 항공사들도 예측 불가능하다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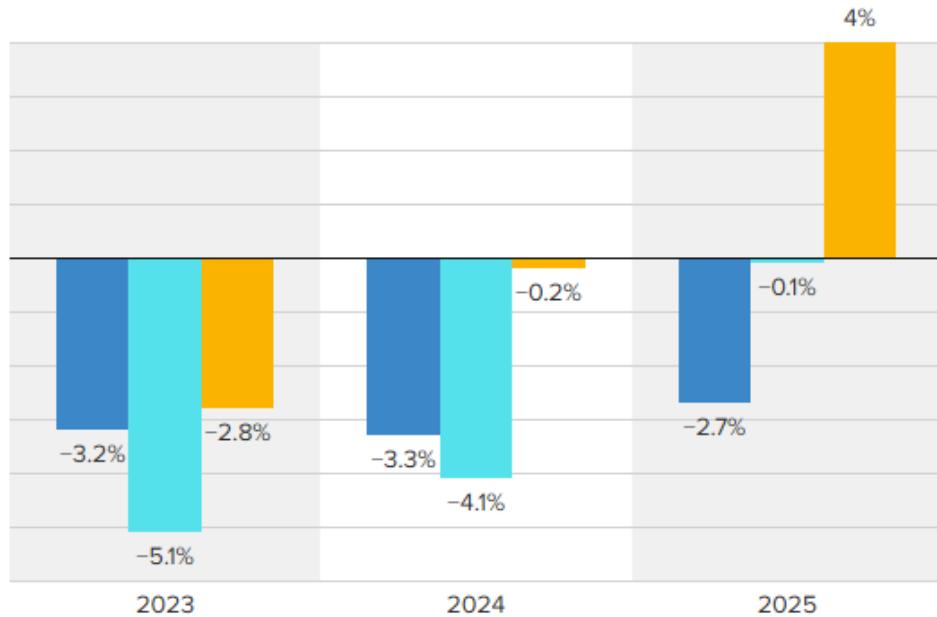
- 학교 방학 기간이 앞당겨지며 5, 6월 항공편 예약이 증가하고 있다. 일부 여행객들은 폭염으로 인해 가을로 항공편 예약을 늦추고 있기도 하다.
- 항공사들은 7, 8월 휴가철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2분기와 3분기에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해왔는데, 여행 수요가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8월 항공편 운항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.
- 미국 항공사들의 8월 국내선 수요는 7월 대비 6% 감소했고,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% 감소한 수치이다.
- 항공사들은 관세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여행 수요 위축에 따라 6월 말과 7월에 항공권 가격을 대폭 인하한 바 있다.

## U.S. airfare on the rise

Prices for air travel rose 4% between June and July; they dropped during that same period in 2023 and 2024.

Monthly percent change in summer airfare | 2023–2025

■ May ■ June ■ July



Note: Seasonally adjusted

Source: U.S. Bureau of Labor Statistics' consumer price index  
Data as of Aug. 12, 2025



CNBC 기사

## CNBC: U.S. shoppers fuel jewelry splurge despite tariff headwinds 미 소비자, 관세 불구 주얼리 구매 열풍

- 유럽과 중국의 소비자 심리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미국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주얼리를 구매하고 있다.
- 주얼리 브랜드 PANDORA는 전 세계 지출이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,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8% 증가했다고 전했다.
- 반면, 중국의 매출은 해당 기간동안 15% 감소했고, 여러 주요 유럽 시장의 매출도 높은 한 자릿수만큼 감소했다.
- 미국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, 관세 우려로 인해 일부 업체는 연간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.

CNBC 기사

[보고서]

## 비트코인, 고가 후 큰 폭 하락...美 생산자물가 영향

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지 하루 만인 14일(현지시간)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.

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4시 48분(서부 오후 1시 48분)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11만8천185달러에 거래됐다. 24시간 전보다 3.68% 하락했다.

이는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4천100달러대와 비교하면 약 5% 떨어진 수준이다.

비트코인은 전날 사상 처음 12만4천 달러선을 돌파하며 지난달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.

...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[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](#)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